

“몽골 문자 아닐까” “100억까지 가능”... 자단목 첫 공개 현장



25일 후지타야키요시테리대학 국제학부 교수가 신안선 출수 자단목에 새겨진 문양이 파스파 문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파스와 문자 아닐까요?”
 25일 전남 목포 국립해양유물연구소 강당. 바다에 펼쳐진 자단목 앞에서 일본 학자가 발견을 멈췄다. 나무 표면에는 숫자 2와 알파벳 E를 합쳐놓은 듯한 문양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날 공개된 자단목은 1975년 발견된 신안선 출수 유물 가운데 일부로, 수장고에 보관돼 있던 목재가 50년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문양을 둘러싼 해석은 다양했다. 일본 덴리대학 후지타 야키요시 교수는 몽골 원나라 시기 사용된 ‘파스파 문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다른 문양을 두고는 일본에서 쓰이던 가문 상징이나 사인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세키 슈이치 고베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문양이 목적지나 구매 가문의 문양일 수도 있고, 정리 방식일 수도 있다”며 “문양 해독을 통해 무역 구조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강당 바다에는 자단목 약 1000점이 빼곡히 펼쳐졌다. 지팡이처럼 가는 목재부터 성인 남성이 두 팔로 안아야 할 굵기까지 크기도 제각각이었다. 수장고에서 강당으로 옮기는 데만 인건비가 2000만원가량 들었다고 한다.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마치 미술대 입시 심사장을 연상케 했다.
 연구자들은 나무 표면에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문양을 이리저리 살폈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확대해 선을 따라가며 의미를 추적했다. 일부는 목재를 직접 들어보거나 코를 가까이 대고 향을 맡기도 했다.
 관람객들도 발견을 멈췄다. 돋보기를 꺼내 문양을 찾고 사진을 남기는 모습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많은 자단목이 공

강당 가득 1000점 공개... 직접 들고, 맡고, 살펴봐 문양 해석 분분... 몽골 문자·일본 가문 상징 가능성 “문자 연구 시작”... 한·중·일 공동연구 필요성 제기

개된 것은 처음 본다”며 “문양 설명을 들으니 특별전이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은석 국립해양유물연구소장은 “자단목은 당시 최고급 사치재였다”며 “오늘날에도 비싼 목재로, 현재 가치로는 100억원 수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말했다.
 자단목의 규모와 적체 상태를 두고는 침몰 원인과 연결한 해석도 나왔다.
 야키요시 교수는 “(당시 사람들은) 신안에 꿈을 쌓았고, 욕망을 실었다”며 “날

리며 “한국과 중국, 일본의 공동연구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연구소는 자단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고해상도 촬영과 3차원 데이터 구축을 통해 정밀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적외선 촬영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문양까지 찾아내는 작업도 병행한다.
 조미순 연구소 전시교육과장은 “자단목은 사실상 신안선 출수 유물의 마지막 연구”라며 “적외선 촬영이 이뤄지면 맨눈으로 보이지 않던 문양이 더 드러나는 등 자단목에 대해 더 밝혀질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한국 수중발굴 50주년을 맞아 자단목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오는 9월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



26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주부 등 200여명이 4개월 신생아를 학대하고 사망케한 혐의 재판받는 30대 부부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

“아동학대 엄벌을” 순천지원 앞에 모인 주부들 눈시울 결심공판 앞두고 전국서 모인 시민들, 법원앞서 피켓집회 아들 학대·사망케한 30대 부부, 무기징역·추가 수사 촉구

“자신의 아기를 심하게 학대해 사망케 한 30대 부부를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26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순천지원 앞에는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여 명의 주부 등이 “아동학대 엄벌하라”, “해든아 이제 아프지 마”, “엄마에 의해 짧은 생을 마감한 해든이를 기억해 주세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SNS 오픈채팅방에서 모인 400여 명의 회원 중 일부로,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서 온종일 피켓 시위를 벌이며 엄벌을 호소했다. 몇몇 회원들은 자신의 아기를 등에 업거나 안은 채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법원 주변에는 해든아(가명)의 죽음을 애도하며 평안을 비는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 150여 개가 도로를 가득 메웠다. 이들의 호소에 발견을 멈춘 시민들은 피켓과 근조 화환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퇴사 앙심’ 흥기 행패 반복 60대, 2심 징역 3년 실형

퇴직한 병원에 앙심을 품고 흥기를 든 채 찾아가며 행패한 60대가 1심과 달리 살인예비 혐의까지 인정돼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26일 살인예비·공공장소 흥기소지·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69)씨의 흥기소지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달리,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사실에 비춰 A씨가 살인을 하려는 준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살인예비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한다”고

1심심 ‘공공장소 흥기 소지’만 유죄... 징역 8개월 항소심은 살인예비 혐의도 인정, 원심파기 판결 밝혔다.
 이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수사 당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흥기 등을 자가용에 싣고 다니며 같은 해 7월20일까지 전남 나주 모 요양병원에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병원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20일 자신의 차량에서 흥기 2개(회칼·손도끼)를 챙겨 같은 병원 원장실을 오가며 병원 관계자·환자들에게 공포를 유발한 혐의로 받았다.
 A씨는 또 자신의 차량 주변에 행인이 서 있는데도 4~5차례에 걸쳐 차문을 강하게 여닫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퇴사 사실에 해당 요양

병원 원장을 원망하며 해코지하고자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실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병원장을 만나지 못한 A씨는 자가용을 몰고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40여분 만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2023년까지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했으며 퇴사하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1심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흥기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병원에 대한 불만이 커져서 살해 범행 동기가 생겼다고 해도 실제 위협이나 물리적 공격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오권철 기자

업주·경찰 폭행... 식당서 만취 난동 부린 40대 구속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폭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업주 6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C경감을 향해서도 주먹질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업주가 술값을 요구하자 거부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Self 장어명가 청산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어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